

辛丑年 새해설계



명현관 해남군수

“고소득 기반 구축·서민경제 회복 탄력성 제고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이 열매를 맺는 중요한 시기”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우보호시(牛步虎視)의 각오로 더 멀리 보고 더 우직하게 걸어 가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명 군수는 새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경쟁력이 월등한 ‘청정 먹거리’ 부가가치화다. 먼저 비교우위에 있는 농수산업에 육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과 미래농업 기반 구축, 중장기 미래 비전 접목 농어업 맞춤형 지원에 앞

신소득 작목 발굴 등 ‘청정 먹거리’ 부가가치화 앞장 郡 신청사 하반기 준공...관광·출산 정책 업그레이드

장선다. 또 전국 최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의 단계적 확대와 품목 내실·다양화를 통한 품질 도약을 뒷받침한다.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라이브커머스 등 맞춤형 농·수·특산물 판매 채널을 확대해 온라인 유통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해남읍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 농어가에는 소득 향상과 새로운 판로를, 군민·소비자에게는 정정한 식재료를 제공한다. 지난해 추가 선정된 여촌뉴딜300사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김 산업 특화단지·스마트 물류

센터 조성 등 현안 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1천40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확대해 코로나19 극복 토대로 활용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규모 사업들도 본격화한다. 해남군 신청사는 하반기 준공·이전을 마치고 군민광장 조성에 착수, 서남권 행정 랜드마크로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상권의 모태인 해남읍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6년간의 기다림 끝에 기지개를 펴며 새롭게 개장한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관광정책도 다각도로 펼친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관광 발전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색있는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체험형 콘텐츠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해 관광정책에 반영하는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전남 블루투어 거점인 땅끝관광에는 땅끝공원 조성, 황토나라테마촌, 땅끝오 토캡핑장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한다. 출산정책 도내 1위 도시답게 관련 사

업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출산과 보육, 돌봄 등 가족지원 종합서비스를 담당할 땅끝가족어울림센터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착공된다.

상반기 중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이 완공되는 등 가족 중심의 여가 공간도 확충된다.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고정형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등 감염병 선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명현관 군수는 “올해는 신청사 시대가 개막하는 해로 50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수성송의 푸르른 기상처럼 군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며 “지역 백년대계를 세우는 데 청정 해남의 소중한 가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기자

무안군, 인구 10만명 달성 총력

현재 8만6천여명 수준...출산율 제고 등 다양한 정책 전개

무안군이 인구 10만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은 1969년 14만4천명으로 최고 인구수를 기록한 이후 2004년 6만2천명까지 감소했지만 전남도청 이전과 오룡지구 개발을 통해 인구가 꾸준히 증가, 현재 8만6천여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 17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는 자연감소가 계속되면서 지난 4월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 정책과 아이낳는 분위기 조성,

여성의 사회 진출 욕구 해소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0-5세 무상보육 지원과 같은 국가정책과 함께 해피마미 출산 준비교실, 가족센터 건립 등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인구늘리기 관련 조례를 개정해 관내 전입 기업체 임직원과 군 장병의 상품권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관내 대학교 재학생도 4년간 총 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로움 회산백련지에 청단풍 65그루를 심어 아이들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출산둥이 탄생의 숲’을 조성, 생명탄생의 소중함과 젊은 세대의 자녀 출산 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지자체 12월 말 기준 출생아 수는 423명으로 전남지역 군단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안군은 인구 증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는 한편, 무안을 일대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를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라며 “출산율과 일자리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인구 10만명의 명품 도농복합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안=최옥수기자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화 최선”

강효석 목포부시장 취임

“어느 조직이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화합이 중요합니다.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동료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제48대 목포시부시장으로 취임한 강효석(52) 부시장은 “목포는 공직자

로 첫발을 내딛은 뜻깊은 도시로 1998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3년 4개월간 목포시에서 근무했던 시간은 아직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회고했다.

강 부시장은 “앞으로 계획된 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정부와 전남도의 소통 창구가 돼 목포의 무한한 잠재력이

미래 먹거리로 산업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 덕인고 출신인 강 부시장은 1995년 지방고시 1기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전남도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지원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검체실

Specimen room

강진군,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강진군보건소가 최근 국비 1억원을 들여 강진군보건소 부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과가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으로 진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강진군보건소가 최근 국비 1억원을 들여 강진군보건소 부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과가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으로 진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강진군 제공)

나주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개소

남평 양우내안에 아파트 유희공간 활용

나주시는 6일 “전남 남평읍 양우내안에 리버시티 2차아파트 내 아뜰리엔터에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간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함께 돌보는 가족 공동체 공간이다.

이 공간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신

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조성됐으며 신한금융재단에서 리모델링과 기자재 비용을 지원했다. 당초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아파트 시설 유희공간을 2025년 12월 말까지 무상 활용하게 됐다.

총 면적 111.05㎡ 규모의 공동육아나눔터는 돌봄 품앗이, 장난감·도서 대여, 문화 체험, 동화구연 등에 필요한 다양한 기자재를 갖췄다.

나주시가 관리하고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시설 이용·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동 돌봄 공백 해소는 물론 방과 후, 방학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준환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상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갯벌을 담은 낙지와 싱싱한 수산물 가득한
해남군 북평면 남창 5일장

네비게이션 주소 : 해남군 북평면 달랑진길 48-11

주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수산물과 바로 옆에는 낙지위판장도 있어요!
열린 공간에서 시골5일장도 느끼시고, 착한 가격의 김밥도 먹으러 오세요.
주차장은 인근 주민자치센터 이용가능합니다!!

● 장이 서는 날 ● 2, 7, 12, 17, 22, 27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문의 : 062)650-2099